

9/13/20

설교 제목: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창세기 25 장 19-26 절

- (창 25:19)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창 25:20) 이삭은 사십 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बाट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창 25:21)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창 25:22)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창 25:23)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창 25:24)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창 25:25)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창 25:26)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육십 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 받아 이스라엘의 2대 족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삭의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신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이루시겠다는 큰 민족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손들로 이루어진 물리적인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게 될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 중 이스마엘과 그두라로부터 얻은 여섯 아들이 모두 유기되고 오직 약속의 자손인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된 사실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이삭에게는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본문도 이삭의 아들들의 탄생과 함께 하나님은 언약의 계대로 복 중에서 야곱을 택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어 이삭에 대한 기록이라기 보다는 야곱을 소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40 세에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모세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소개하면서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며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라고 자세하게 족보를 설명합니다.

(창 25:19)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창 25:20) 이삭은 사십 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모세가 리브가에 대해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은 앞으로 전개될 일 곧 야곱이 자신의 외삼촌 라반의 딸들 레아, 라헬과 결혼하여 그들의 자식들이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로 세워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언급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해서 서로 사랑하며 어머니 사라가 죽은 후에 위로를 얻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가정에 큰 문제가 있었으니 오랜 기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창 25:21)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본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단 한 문장으로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셔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 이 문제가 대수롭지 않았던 것처럼 비쳐지지만 실로 이것은 이삭과 리브가 모두에게 무척이나 큰 부담이었고 고민거리였습니다.

이삭이 40 세에 결혼하여 60 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으니 리브가가 결혼 후 20 년이 지나도록 임신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평범한 가정도 결혼하고 몇 년 안에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걱정을 하게 마련인데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약속의 계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던 이삭은 얼마나 큰 정신적인 압박을 느꼈겠습니까?

아들을 기다리는 20 년동안 이삭과 리브라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까 가히 상상이 갑니다.

참 이상하지요.

다른 집 아낙네들은 일단 결혼하면 아이가 잘도 들어서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또 훗날 야곱의 아내가 된 라헬 등 아브라함 가문의 여인들은 한결같이 임신을 하지 못해 애간장을 끓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아브라함 가정에 대대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받은 언약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개입하여 아브라함의 자손 한 사람 한 사람을 나게 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자손들이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다른점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도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 보겠다고 이스마엘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받은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0 년만에 기도의 응답을 받아 리브가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신한 리브가는 자신의 뱃속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는 것을 감지하고 근심이 되어 하나님께 여쭙니다.

(창 25:22)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창 25:23)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창 25:24)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창 25:25)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창 25:26)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육십 세였더라

리브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리브라의 태중에 두 국민이 있는데 그 두 민족이 복중에서부터 나뉠 것이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구별과 택함을 보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은 한 어머니에게서 한 날 한 시에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그렇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이라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습니다.

야곱은 성령을 따라 난 자이고 에서는 육체를 따라 난 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은 인간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임의로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신다는 것을 공평하지 못한 처사로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을 불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롬 9:13)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롬 9:14)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롬 9:15)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롬 9:16)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롬 9:17)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롬 9:18)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기로 작정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불의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선택과 유기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과 '죄'를 연관시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에서가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것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논리로 따지자면 야곱도 에서와 마찬가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도 역시 유기되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나지도 않아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그를 선택하심으로 당신의 작정하심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이 곧 당신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롬 9:10)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롬 9:11)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롬 9:12)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형 에서가 아니고 동생 야곱을 택하심으로 소위 장자라고 할 때 주어지는 혜택조차 얻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세상 질서로는 분명 에서가 장자로서 존귀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자 에서가 아니고 차자 야곱을 택하시고 그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자 에서가 아니고 차자 야곱을 택하심으로써 택함이 전적으로 당신의 은총에서 기인된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세 전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후에 인류가 저지른 죄를 보시고도 그 선택을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후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았음에도 그 선택을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며 훈련시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깊고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분께 온전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 139:14)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 139:15)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시 139:16)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시 139:17) 하나님이어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시 139:18)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즉 예정에 대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선택에 사람의 공로가 있다고 여길 때 교만이 싹트고 공로주의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은 이런 모든 인간의 교만을 꺾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택함 받음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이외에 그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음을 깨닫게 되어 온전히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선택을 끝까지 변경하지 않으시고 견인해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대한 굳은 확신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모두 잠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과 유기에 어떤 불의함도 없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아무 공로없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하여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의 선이나 악에 근거했다면 우리는 물론 선택받지 못하고 유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세 전에 우리가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자유로우신 뜻을 따라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믿는다면 어찌 아니 감사 할 수 있겠습니까?

만세 전에 아무 공로없음에도 우리를 택해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셔서 믿음 사람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견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